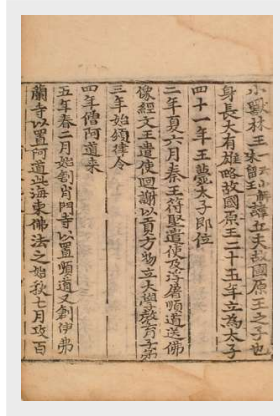


소수림왕[小獸林王] 불교와 율령의 힘으로 도약의 기반 을 마련하다

미상 ~ 384년(소수림왕 13)



삼국사기 소수림왕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소수림왕은 고구려의 제17대 왕으로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왕위에 오른 후 국가 체제와 제도를 충실히 정비하여 고구려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2 소수림왕의 즉위와 그 배경

소수림왕은 제16대 고국원왕(故國原王)의 아들이며 이름은 구부(丘夫)이다. 태어난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소수림왕의 이칭으로는 소해주류왕(小解朱留王)과 해미류왕(解味留王)이라는 왕호가 전한다. 전자는 『삼국사기(三國史記)』, 후자는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 전하는 이칭인데, 해미류왕은 해주류왕을 잘못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주(朱)'와 '미(味)'의 자형이 비슷한 데다 고구려의 제3대 대무신왕(大武神王)의 이칭으로서 광개토왕릉비에 '대주류왕(大朱留王)'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소수림왕은 355년(고국원왕 25) 봄 정월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같은 해 겨울 그의 할머니인 주씨(周氏)가 포로로 잡혀 갔던 전연(前燕)에서 인질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 이보다 앞선 342년(고국원왕 12) 전연의 군대가 고구려의 도읍인 국내 지역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 고구려군이 크게 패하여 고국원왕이 홀로 도주한 사이 왕모(王母) 주씨와 왕비는 전연군에 사로잡혔다. 전연군은 고국원왕의 아버지인 미천왕(美川王)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탈취하고 고구려의 도읍을 철저히 파괴한 후 온갖 보물과 포로 5만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관련자료](#) 미천왕의 시신은 다음 해에 고국원왕이 신하를 칭하며 공물을 바쳐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왕모인 주씨는 13년간이나 전연에 인질로 잡혀 있어야 했다.

오랫동안 고구려를 괴롭혀온 전연은 370년(고국원왕 40)에 전진(前秦)과의 싸움에서 패하면서 망하였다. 하지만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다음해인 371년 백제가 3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남변을 침략해 왔다. 이에 고국원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 평양성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화살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다. [관련자료](#) 소수림왕은 전투 중 군주가 사망하는 참